

‘작보제 필요성’에 공감 아픔 견디며 ‘풍년 농사’ 다짐

교육홍보부



한국작물보호협회(회장 한태원)가 「2012농업경영인 농약안전사용 Master 교육」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다.

작보협회는 지난 9월 26일 전남 담양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담양군 포도연구회 소속 포도 재배농업인 30명을 대상으로 「포도 병해충 진

단 및 방제」를 비롯하여 「포도 재배법과 작물보호제」,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소비자」, 「작물보호제의 올바른 사용법」등을 골자로 하는 제4기 농약안전사용 마스터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실시된 주요 강의 내용을 단원별로 요약, 정리해 본다.



소수 농업인의 오판, 다수 농업인에 큰 피해

정양모 과장

국립농산물관질관리원 전남지원 정양모 과장은 이날 첫번째 강사로 나서 ‘농산물 안전성 조사 및 작물보호제 안전사용’이란 주제를 통해 부정농약과 미등록 농약의 사용에 따른 피해, 부적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농약안전사용기준의 준수 등 필수적인 내용을 전남지역 및 담양군의 우수한 안전성 조사결과를 예로 들며 설명하고 포도재배시 사용가능한 농약의 목록을 준비,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당부하였다.

2011년도 농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 중 포도의 경우를 보면, 전국적으로 검출횟수는 단 2건에 불과하지만, 이중 1건이라도 부적합이 나오게 되면 부적합률은 50%에 이를 수 있음을 예로 들었다.

정 과장은 끝으로 농업인의 우수한 농산물 생산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업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불합격 농산물이 발생, 대다수 농업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부적합률 제로에 도전하는 끊임없는 노력을 당부했다. 그리고 항상 농업인과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품관원의 의지도 나타냈다.



병(病)은 예방, 충(蟲)은 예찰

이성찬 연구사

이날 두 번째 강사로 나선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성찬 연구사는 ‘포도 병해충 진단 및 방제’ 주제를 통해 올 한해 큰 피해를 준 병해충의 발생 현황 및 효율적 방제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병해(곰팡이)의 발생 3단계 및 예방제와 치료제의 살포시를 비롯하여, 격발이 예상되는 경우의 작물보호제 살포시기, 월동기 방제의 중요성 및 기상 변화에 따른 과수병해충의 발생을 전망하였다. 포도새누무늬병(혹두병)의 경우, 발병적온인 20~25℃인 우리나라 5월 중순의 기온에서 다발생이 예상되므로 봄철 강우 다발시 개화전 5-6월 1~2회, 낙화 후에는 기상 따라 10일간격으로 1~2회 방제를 당부했다. 포도 탄저병은 다발생 농가는 가급적 비가림재배를 실시함은 물론 이병과는 2차감염원이 되므로 반드시 조기에 제거 하라는 설명이 있었다. 약제방제는 월동직후 석회유황합제를 살포하고 발아기부터는 10~15일간격, 7~8월 비가 잦을 때에는 7~10일간격으로 전용약제를 살포해야 방제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포도병해충의 진단 및 방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점정리로 ‘병은 예방, 충은 예찰’ 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수년간의 시기별 병 발생빈도를 달력에 잘 기록해 놓은 뒤에 살균제는 예방차원에서 비가 오기 1~2일 전에 살포를 하고(이때 포자의 부착발아기간을 미리계산), 살충제는 예찰을 통해 발생빈도를 파악한 뒤 비가 온 후 밀도가 낮아졌을 때 작물보호제를 살포하는 것이 좋은 방제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포도는 '잎' 이 중요, 당도는 '시간' 이 좌우

박서준 연구사

세 번째 강사로 나선 농촌진흥청 박서준 연구사는 ‘포도 재배법과 작물보호제’ 주제를 통해 비가림 시설의 필요성 및 효과, 포도의 생리장애, 병해충 방제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자체개발한 수세판단기를 통한 간벌 방법을 소개해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박 연구사는 첫째도 잎, 둘째도 잎을 강조하며 포도잎 관리의 기본원칙으로 비가림시설과 병해충 방제를 꼽았다. 비가림폭은 캠벨얼리의 경우 240cm, 거봉계의 경우 300cm를 기준으로 삼고 시기별 알맞은 병해충 방제를 통해 포도잎을 관리하기를 권장했다. 포도의 품질은 정직하며 이러한 기본이 밀바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4중복비를 통해 당도향상, 과립비대, 착색촉진을 유도한다면 이는 효과도 불확실하며 품질도 떨어진다고 밝혔다. 적정착과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송이의 무게가 중요하며 캠벨얼리 400g, 거봉 무핵 500g, 거봉 유핵 400g을 기준으로 추천하며, 불량한 기상조건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년도 농사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착과량 조절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포도를 수확한 뒤에도 낙엽 기까지 모든 포도잎의 건전한 관리로 충분한 저장양분을 축적하고, 주기적인 관수 및 병해충 방제를 한다면 포도나무는 저장양분을 통한 내한성 증가, 결과모지 등숙, 발아율 향상 및 초기생육이 양호하여 내년도의 풍년농사를 이끌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포도농사는 하늘과 동업하는 사이지만, 품질의 차이는 각 개별농가 몫”이라며 부단한 노력을 통한 내년도 고품질 포도생산을 기원했다. ㉞